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

-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채 송 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

-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김정규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채 송 화

인 준 서

채송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 서수연 (인)

심사위원 김정규 (인)

심사위원 박혜경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각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했고, 응답을 한 만 18세-35세 성인남녀 575명 중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을 고려하여 선별한 총 1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질문지,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 전위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SPSS v21.0과 SPSS Macro v3.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 전위공격성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관계관여적 양가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정서표현 양가성과 전위공격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전위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전위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각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지만,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표현 양가성, 전위 공격성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전위공격성의 예방 및 치료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
관여적 양가성, 전위공격성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8
1) 연구문제	8
2) 연구모형	9
II. 이론적 배경	10
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10
2. 전위공격성	15
3. 정서표현 양가성	17
4. 아동기 정서적 외상, 전위 공격성, 정서표현 양가성	19
III. 연구방법	25
1. 연구참여자	25
2. 연구도구	27
1)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27
2) 아동기 정서적 외상 질문지	27
3)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	28
4) 전위공격성 질문지	29
3. 자료 분석	30

IV. 연구결과	32
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정서표현 양가성,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	32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32
2)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36
3) 연령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37
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39
2. 매개모형 검증	43
1)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43
V. 논의	47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의의	47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52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6
표 2. 아동기 정서적 외상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28
표 3.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29
표 4. 전위공격성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30
표 5.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33
표 6. 아동기 정서적 외상관련 특성	35
표 7.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	36
표 8. 연령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	38
표 9.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41
표 10.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42
표 11. 변인들 간 경로 분석	45
표 12.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46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9
그림 2. 변인간의 관계를 나타낸 매개모형	43
그림 3.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다중매개모형	4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발적인 분노를 다룬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우발적인 분노로 인해 일어난 범 죄는 방화, 문지마 폭행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분노의 원인과 무관한 대상, 즉 불특정 대상에게 공격성이 가해져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제고된다. 경찰범죄 통계(2014)에 따르면 우발적인 문지마 범 죄는 2011년에는 29.7%, 2012년에는 31.1%, 2013년에는 32.3%, 2014년에는 33.4%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문지마 범 죄를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이다.

전위 공격성이란, 분노를 유발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분노를 전위하여 공격하는 행동을 말한다. 전위 공격성은 공격성의 한 종류로, 문지마 범 죄의 강력범 죄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다(Herrero-Fernandez, 2012, Hoobler & Brass, 2006; Herrero-Fernandez, 2013b; Reijntjes, Kamphuis, Thomaes, Bushman, & Telch, 2013; Ana Estevez et al, 2016에서 재인용).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자신이 덜 좋아하는 동료에게 화풀이를 한다든지(Denson, 2009), 학교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대상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Denson, 2008), 사이버 불링, 보복운전, 가정 폭력, 알코올 문제가 모두 전위 공격성과 관련이 깊다(Denson, Pedersen, & Miller, 2006; Hoobler & Brass, 2006; 김진희, 2017; 최영, 2016).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전위 공격성은 다른 문화권보다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Redford(1999)의 공격성과 전위 공격성에 대한 문화비교 연구 결과, 서양 문화권은 직접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전위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 문화권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위계가 중시되어(한규석, 1988)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연장자인 사람에게서는 분노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류준범, 2000). 따라서 전위 공격성은 한국인의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박기환, 서민재,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공격특성을 이해하는 데 보다 유용한 이 전위 공격성의 원인기제에 대해 탐색하여 경험적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공격성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는 크게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변인은 기질과 호르몬의 영향 등의 유전변인과 생물학적 변인이 포함되며, 환경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 전반적인 학교생활 등의 가정변인과 학교변인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변인 중 가정변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정폭력과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 1986)에 따르면 사람은 모델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주 접하는 모델인 부모가 공격성을 보일 경우 아동은 이를 관찰하고 모방하여 공격성이 학습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아동학대와 부부간의 폭력 노출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에서 가장 빈도 높게 보고되는 문제는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적 문제행동이다(Cahn & Yeung, 2009; Kitzmann et al., 2003, Wolfe et al., 2003; 박애리, 2014에서 재인용). 국내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대 경험이 있거나 부부간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의 폭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개인변인과 가족변인, 그리고 학교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이아영, 유서구, 2011). 보다 구체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부부 간 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부부간 폭력에 노출된 아동보다 공격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김재엽, 송아영, 2010; 채유경, 2005).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을 야기 시키는 데 있어 가정폭력의 영향이 상당하며 그 중 아동학대가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연구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지만(이은주, 2010), 학대의 유형에 따라 공격성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분노표현 방법에 있어 분노를 억제하기보다 표출하는 경향이 높고(안규민, 2016), 분노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성이 높아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할 때 신체적으로 대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이은비, 장은영, 이선미, 2015). 반면,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김승미, 2016; 안규민, 2016, 이지영, 손정락, 2010) 약한 상대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간접적인 표현방법을 사용한다(이은비, 장은영, 이선미, 2015). 이는 직접공격성과 전위 공격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특징과 유사하다. 직접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은 분노억제경향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전위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은 분노 표출과 분노 억제 경향 모두를 가지고 있으나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더 높다(이하나,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체적 학대 경험은 직접공격성과 더 관련이 있고 정서학대 및 방임경험은 전위 공격성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과 그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학대는 주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외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Allen, 2014). 외상이란(Trauma), 개인의 심리적 고통과 충격을 유발하는 위기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

하는 등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Tedeschi, Calhoun, 2004). 외상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Lenore Terr(1991)은 외상을 일회적 외상(single-blow trauma)과 반복적 외상(repeated trauma)으로 구분하였다. 일회적인 외상이란, 개인이 살면서 단회적으로 경험한 사건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하며, 반복적인 외상이란, 외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한다. Allen(2014)은 외상은 대인관계 요소가 작용하는 것에 따라 인간 외적인 외상(impersonal trauma), 대인 관계적 외상(interpersonal trauma),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으로 구분하였다. 인간 외적인 외상은 자연재해와 같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대인 관계적 외상은 타인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인해 겪는 외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애착외상은 대인관계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대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다. Allen(1995)은 외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수록 심각도가 증가되고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일어난 경우에 심리적 악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기 정서학대 및 방임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아동기 정서학대 및 정서방임 경험을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으로 정의를 하고자 한다(김은정, 김진숙, 2008; 허정윤, 유영달, 2012; 조한익, 최종환, 2013; 이나영, 2015; 김승미, 2016; 고유나, 2016).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악영향을 끼치며(허정윤, 유영달, 2012; 이유경, 2006; 김은정, 2009), 그 중 정서조절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석애란, 2017; 이은비, 장은영, 이선미, 2015).

정서경험은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에 있어 가정환경은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이 성장할 때 정서적으로 지지적인 환경이었다면 다른 환경의 아동보다 정서적 혼란을 덜 느끼며, 혼란을 느끼더라도

도 스스로 효율적으로 진정시키는 등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다(이지현, 2007).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에 비지지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양육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정서를 수용 받지 못하거나 거부 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에 대해 과민해지고(김은정, 2010)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면 아동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게 된다(Krause et al., 2003; Goldsmith, Freyd, 2005). 이러한 정서 표현의 문제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때 문제 중심적 대처보다 정서 중심적 대처나 미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이주일, 1997)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유능한 행동들을 감소시킨다(강희연, 1997). 이는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여 적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거나 충동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전위 공격성을 유발하며, 오히려 경직된 정서 억제 노력이 피하려던 정서 상태를 증가시킬 수 있다(Gross, Levenson, 1997).

그러나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꼭 부적응적인 것은 아니다. 정서억제에 관한 문화비교 연구 결과,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정서 억제를 많이 사용하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억제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경우, 자존감과 외향성이 낮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삶의 만족감이 낮았다. 반면, 한국인의 경우, 정서억제가 높을수록 성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와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 John, 2003; Suh, 1994). 이는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 정서억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순히 억제만 하고 있는 상태와 정서를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여 내적인 갈등을 겪는 상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ing과 Emmons(1990)는 정서억제 개념을 목표와 갈등의 관점에서 보다 구

체적으로 구분하여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억제하며 내적으로 갈등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개발하였고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두 유형은 정서 갈등의 동기로 구분된다. 먼저 자기방어적 양가성(self-defensive ambivalence)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할 능력이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관계관여적 양가성(relationship-involved ambivalence)은 자신의 체면과 대인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행동을 신중히 하거나 자제하려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적 적응지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신체화, 우울, 불안, 강박증, 대인간 민감성, 적대감, 공격성, 피해망상, 정신증과의 관련성에 있어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강박증, 대인간 민감성, 우울에서만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 특성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보다 적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적 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정서억제의 개념은 같지만 정서 갈등의 동기의 측면에 따라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이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추측하여 본 경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은 전위 공격성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자를 초기 성인기에 있는 만18세~35세의 성인남녀로 설정하였다. 초기 성인기는 초기 성인기는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시기로 부모로부터 사회적, 정서적, 재정적 등의 독립을 하는 중요한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발달 과도기에서 어린 시절의 정서적 학대의 결과가 두

드러질 수 있고, 아동 학대를 경험한 대학생들인 과거 학대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부적절한 대처 전략을 개발했을 수 있다((Briere & Scott , 2006; Cicchetti & Toth, 2000; Gipple, Lee, & Puig, 2006). 이러한 견해에 따라 초기 성인기에 있는 성인들이 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문제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전위공격성, 정서표현 양가성(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전위 공격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관계방어적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4. 전위공격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5. 전위공격성은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부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가설 2-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증가할수록 자기 방가적 양가성이 높아져 전위 공격성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증가할수록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높아져 전위 공격성이 감소할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다중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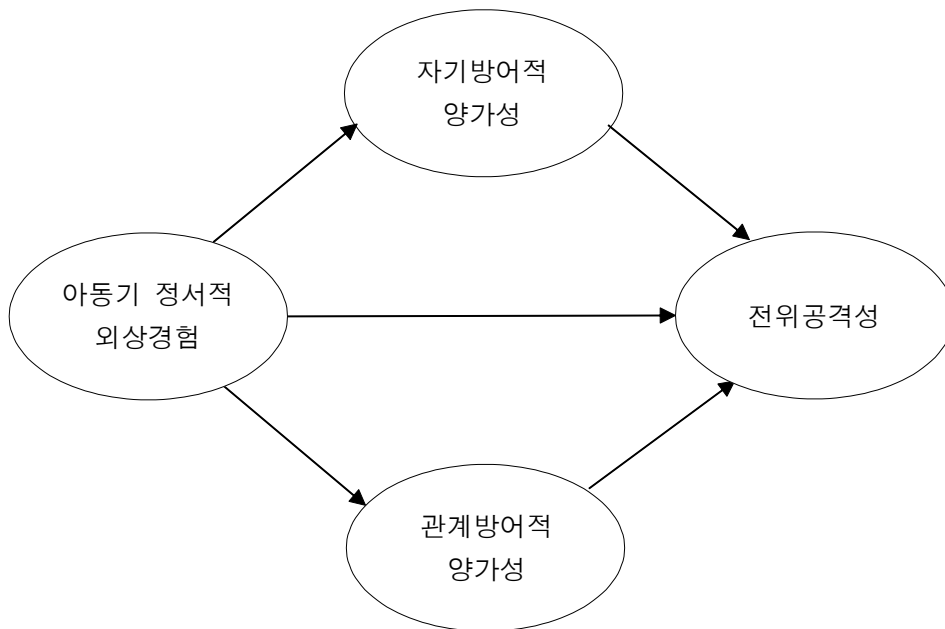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1) 외상경험

외상(Trauma)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경우를 말한다.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남겨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고 진단하고 있다(APA, 2013). 이러한 외상은 특정 개인에 국한되어 경험되는 것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으며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기도 한다(Allen, 2014).

외상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구분된다. Lenore Terr(1991)은 아동기 외상 연구에 기초하여 외상을 일회적 외상(single-blow trauma)과 반복적 외상(repeated trauma)을 구별했다. 일회적인 외상이란, 개인이 살면서 단회적으로 경험한 사건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한다. 반복적인 외상이란, 외상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상 사건에는 홍수, 눈사태, 지진 등의 자연재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살인목적, 강도 등의 폭력적 범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등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가족 간에 일어나는 성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역시 외상에 포함된다.

앞서 나열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를 제외하면 대개 대인관계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외상은 대인관계 요소가 작용하는 것에 따라

다시 인간 외적인 외상(impersonal trauma), 대인 관계적 외상(interpersonal trauma),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 외적인 외상은 지진, 눈사태, 홍수 등과 같이 자연의 작용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대인 관계적 외상은 타인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인해 겪는 외상을 말한다. 여기에는 폭행, 강도 등의 폭력적 범죄 혹은 테러, 전쟁, 포로수용소의 수감자가 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애착 외상은 대인관계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대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다. 주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외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수록 심각도가 증가되고,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일어난 경우에 심리적 악영향이 크다(Allen, 1995). 따라서 아동학대는 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점에서 심리적 악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상은 단순 외상과 복합외상으로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Herman, 1992). 대인관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외상에 노출된 개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심층적이고도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이다(Herman, 1992; 장진이, 2010).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복합외상이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이고 장기화된 외상적 경험 혹은 사건이며, 발달적으로 취약한 시기, 특히 아동기에 양육자 혹은 성인에 의해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및 유기로 나타나는 개인의 발달과 성숙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Courtois, Ford, 2009). 이러한 견해에 따라 아동학대는 복합 외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Terr, 1991; Hurter, 1999; Allen, 2014; 장진이, 2010; 박선미, 2017).

복합외상은 주의력 및 의식기능의 손상, 정서조절 기능의 손상, 신체화 증상, 타인과의 관계 변화, 자기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며 이러

한 심리적 후유증을 포함하는 것을 복합외상증후군(Complex 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복합PTSD)이라고 한다(Pelcoviz, van der Kolk, Mandel, Kaplan, & resick, 1997). 이는 주로 회피(avoidance), 재경험(re-experience), 과각성(hyperarousal) 등의 증상에 국한되어 진단되는 단순 외상후 스트레스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단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더 심층적인 심리구조인 성격과 자기체계의 변화를 유발한다(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복합외상에 속하는 아동학대를 다루고자 한다.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3조 7호). 아동학대는 학대의 특성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로 구분된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체를 가해하는 직접적인 행위나 도구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가치감이나 안녕감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아동을 감금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임은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필요한 치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심리 정서적 욕구를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성학대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는 행위,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추행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우리는 이러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개인을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아동학대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경미한 학대를 포함한 광의적 기준에서 봤을 때 발생 비율은 60.3%로 나타났고, 심각한 학대만을 포함한 협의적 기준으로 본다면 27.5%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 이러한 아동학대는 2014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17). 성인의 아동학대 비율을 조사한 보고서는 없지만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아동학대를 경험한 성인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하위 유형의 사례 비율을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8,980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3,588건(19.2%), 방임 2,924건(15.6%), 신체학대 2,715건(14.5%), 성학대 493건(2.6%)의 순으로 나타나 중복학대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정서 학대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신체적 학대는 피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생명과 관련이 높아 뉴스 등으로 자주 보도되어 심각성이 제고되어 왔으나 정서학대는 피해의 정도를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정서학대가 신체학대와 같은 정도로 아동의 정서와 행동 영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McGee, Wolfe, & Wilson, 1997; 구훈정 등, 2014; 박희정, 임영진, 2016).

아동기 정서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정서, 인지, 행동에서 다양한 문제를 보인다. 아동기 정서학대 및 정서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정서조절의 어려움(Berzenski, Yates, 2011), 공감능력의 저하(Haskett, 1990; 조은정, 이기학, 2004; 박인구, 한기백, 2014),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를 많이 느끼는 등 정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축되어 있으며 자존감이 낮다(Erickson & Egeland, 1996, McGee, Wolfe, & Wilson, 1997; Sackett & Saunders, 1999; Glaser, 2002; 황은수, 성영혜, 2006; 이지영, 손정락, 2010; 김은정, 김진숙, 2010; 조한익, 최중환, 2013; 이은비 등, 2015; 고유나, 2016). 또한 학대받은 아동은 적대적인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McGee, Wolfe, & Wilson, 1997;

Pollak, Sinha, 2002),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을 더 많이 한다(Glaser, 2002; 장조현, 2004; 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은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끼친다(Erickson & Egeland, 1996; 박미란, 2003; Feiring, 2005; 박순조, 2012; 노영천, 김홍석, 2013) 아울러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며(Erickson & Egeland, 1996; 보건복지부, 2015),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이고 회피적으로 대처하여 적응적인 문제도 보인다(김아다미, 2001)

이러한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후유증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지며 그 영향은 다양하다(Briere & Runtz, 1988; Moeller et al., 1993, Debra J. Rich, Karla J. Gingerich & Lee A. Rosen, 1997: Spertus 등, 2003에서 재인용). Burns 등(201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 때 정서학대를 경험한 대학생은 정서 인식 명료성이 낮고, 충동 조절 및 목표지향 행동에 관여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을 포함한 장애를 이해하는데 있어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Debra et al., 1997; Kent & Waller, 1998; Hovens et al., 2009) 심한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진단되거나 자살문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APA, 2013). 또한 아동기 정서학대 및 방임의 경험은 성격장애 발병의 핵심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Johnson et al., 2001; Zlotnick emd, 2003),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ttle et al., 2004; Johnson et al., 2006; Lobbestael et al., 2010). 그 밖에 성인의 감정표현 불능증(Cuneyt et al, 2009), 해리 장애(Wright, Crawford, Castillo, 2009), 성기능 장애(Meston, Heiman, & Trapnell, 1999), 섭식장애와도 관련이 있다(Sarah E. Racine, & Jennifer E. Wildes, 2016).

개인의 삶에 이러한 복합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앞서 언급한 외상의 분류에 따라 복합 외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Burgess, Conger, 1978; 박선미, 2017에서 재인용, Allen, 2014; Han, 2010; Widera-Wysoczańska, 2010; 박인구, 2012; 장희순, 2014; 김승미, 2016) 이러한 정서적 학대를 Glaser(2002)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두 유형 구분하여 보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서학대 및 방임을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라고 정의하여 연구한 경우가 많다(김은정, 김진숙, 2008; 허정윤, 유영달, 2012; 조한익, 최종환, 2013; 이나영, 2015; 김승미, 2016; 고유나,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의 차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위공격성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이란 분노 및 공격성을 유발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먼저 초기 정신분석 이론의 추동-감소 이론 따르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공격성이 유발되지만, 분노 대상의 보복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직접 공격성을 억제시키고(Dollard et al., 1939), 처벌로부터 안전한 대상으로 대치되어 억제되었던 공격성이 표출됨으로써 전위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Miller, 1941). 또한 Miller, Marcus-Newhall(1997)은 전위된 공격의 대상이 공격을 유발한 대상과 관련이 없는 무고한 대상이 아닌 사소하고 모호한 촉발자극을 제공한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Bushman 등(2005)은 이를 촉발된 전위된 공격성(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으로 정교화 하였다. 최근에는 인지 사회적 관점에서 전위 공격성을 설명하고 있다. Bercowitz(1990)의 인지적 신연합주의 모델(Bercowitz's Cognitive Neoassociationistic Model)에 의하면, 분노유발사건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공격성과 연합된 기억,

사고, 신체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을 활성화시킨다(Densen, Pedersen, Miller, 2006). 이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를 유발한 대상이 부재하여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어려우면 공격성이 억제되었다가 억제된 공격성은 반동형성 등으로 인해 반추적 과정으로 연결되고, 반추는 공격성과 관련된 연합망을 형성하여 분노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개인은 타인의 사소한 촉발 행동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부적절한 공격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반추가 초기의 촉발 사건에 의해 활성화된 공격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반추가 전위공격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Bercowitz, 1990, 1993; 이하나, 2009에서 재인용).

전위 공격성은 위계가 중시되는 동양권 문화에서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연장자에게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 전위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Redford, 1999; 박기환, 서민재, 2013에서 재인용; 이해영, 2014; 류준범, 2000).

한편, 전위 공격성은 공격성의 한 유형으로 직접공격성과 유사해보이나 직접공격성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전위 공격성은 타인을 공격하여 분노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직접 공격성(Direct aggression)과 같지만 공격의 대상과 분노를 다루는 기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 공격성과 다르다(Bushman, Bonacci, Pederson, Vasquez, & Miller, 2005). 다시 말해서, 직접 공격성은 분노를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 분노를 표출하는데 반해, 전위 공격성은 분노를 유발한 대상에게는 분노를 억제하고 보다 안전한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이는 뇌 회로를 연구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직접 공격성은 행동활성화체계(BAS)와 관련이 있는 반면, 전위 공격성은 행동억제체계(B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nson, 2009; Rajchert, J., & Winiewski, M., 2016). 이러한 전위공격성은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위 공격성은 묻지마 범죄의 강력범죄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고 덜 좋아하는 동료에게 화풀이를 한다든지(Denson, 2009), 학교에서 자신보다 힘이 약한 대상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동(Denson, 2008), 사이버불링, 보복운전, 가정 폭력, 알코올 문제의 형태로도 나타난다(Denson, Pedersen, & Miller, Hoobler & Brass, 2006; 김진희, 2017; 최영, 2016).

이처럼 전위 공격성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관찰되며(Herrero-Fernandez, 2012, Hoobler & Brass, 2006; Herrero-Fernandez, 2013b; Reijntjes, Kamphuis, Thomaes, Bushman, & Telch, 2013; Ana Estevez et al, 2016에서 재인용),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요인으로 그 피해 정도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최근 전위 공격성의 중요성이 시사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전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기제에 관하여는 좀 더 폭 넓은 연구와 이에 적절한 예방적·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전위 공격성을 다루고자 한다.

3.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는 유기체가 세상에 반응하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며 표현되고 행동화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Frijda, 1986). 그러므로 정서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응적이다. 정서를 억제하는 것은 다양한 신체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어 왔다(Cox, McCay, 1982; Jensen, 1987; Friedman, Booth Kewley, 1987; Goldstein, Edelberg, 1988; Giese-Davis, Spiegel, 2001; 조한익, 2010; 박경, 2013). 그러나 단순히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적응적인 것은 아니다. 정서억제에 관한 문화비교 연구 결과,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정서 억제를 많이 사용하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억제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경우, 자존감과 외향성이 낮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삶의 만족감이 낮았다. 반면, 한국인의 경우, 정서억제가 높을수록 성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인관계와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 John, 2003; Suh, 1994). 이는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 정서억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순히 억제만 하고 있는 상태와 정서를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여 내적인 갈등을 겪는 상태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King과 Emmons(1990)는 정서억제 개념을 목표와 갈등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나 있으나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정서표현 양가성은 몇몇 심리적 문제를 유발한다.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갈등을 느끼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서 경험과 표현에 대해 갈등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현재의 감정과 충분히 접촉하지 못하고 긴장상태에 있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Mongraine, Vettese, 2003).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문제 중심 대처보다 정서중심적 대처나 미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한다(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국내에서는 최혜연과 민경환(2007)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개발하였고,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다르게 기능한다고 제시하였다. 두 유형은 정서 갈등의 동기로 구분되는데, 먼저 자기방어적 양가성(self-defensive ambivalence)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능력이나 자신감이 결여되

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관계관여적 양가성(relationship-involved ambivalence)은 자신의 체면과 대인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행동을 신중히 하거나 자제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적 적응지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신체화, 우울, 불안, 강박증, 대인간 민감성, 적대감, 공격성, 피해망상, 정신증과의 관련성에 있어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은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강박증, 대인간 민감성, 우울에서만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 특성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보다 적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유형이 전위 공격성과의 관계에 있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구분하여 그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4. 아동기 정서적 외상, 전위 공격성, 정서표현 양가성간의 관계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전위공격성

분노는 기본 정서 중 하나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반응의 일부로서 생존을 촉진한다(Janig, 2003; Allen, 2014 재인용).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피가 불가능할 때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투쟁을 감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분노 행동이 공격성이다.

분노를 촉발하는 공통적인 주제는 목표와 계획에 대한 방해 즉, 좌절이다(Ekman, 2003). Dollard(1939)는 좌절-공격 이론을 제시하면서 “공격행동은 좌절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좌절이 공격추동을 유발하고, 유발된 공격추동은 공격행동을 함으로써 감소된다고 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Berkowitz(1990)는 좌절이 항상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매개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구나 분노를 경험한다고 해서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노는 때론 적응적일 수 있다(Lewis, 1939). 통제되지 못한 분노가 파괴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Henri Parens, 1992). 통제 되지 못한 분노는 역기능적으로 표현되는데,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 경험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과 관련이 깊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있는 개인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Bowlby, 1980, Browne, Finkelhor, 1986; Mullen, Martin, Anderson, Romans, & Herbison, 1996) 분노를 표현하는데 있어 적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거나 역기능적으로 표출한다(이지영 손정락, 2010; 조한익, 최종환, 2013; 김승미, 2016; 이수진, 2017). 이러한 역기능적 분노 표현과 전위 공격성의 관련성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직접 공격성 집단과 전위공격성 집단을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 이하나(2009)의 연구에서 직접 공격성이 높은 집단은 분노 표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전위 공격성이 높은 집단은 분노 억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전위 공격성이 높은 집단은 분노 억제뿐만 아니라 분노 표출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즉, 전위 공격성이 높은 개인은 분노를 억제하였다가 분노를 표출하는 양상의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Miller 등(2003)의 연구에서도 전위 공격성과 분노억제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개인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염려한 나머지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억눌려진 분노는 반추를 통해 유지되었다가 사소한 촉발 사건에 의해 표출되면서 전위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분노를 매개로 전위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분노 억제 경향이 높을수록 전위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나타났다(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Mazure,

2006)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김미라, 강지현, 2012)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황선주, 박기환, 2014). 이러한 거부 민감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증가하며(Romero,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이는 전위 공격성과도 관련이 높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박보람, 2017; 임혜은, 2016).

분노를 유발하는 좌절이나 고통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분노의 각성은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고 싶다는 욕구를 유발한다(Allen, 2014). 그러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있는 아동은 분노를 유발한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분노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공격성이 억제되고, 이를 표출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대상, 주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전위 공격성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정익준, 이지연, 2012). 이처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전위 공격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나 대부분의 연구는 직접 공격성과 이루어져 왔다. 최근 국내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전위공격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전위공격성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정서표현 양가성

아동의 정서경험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첫 의사소통은 정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서 발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영아 초기에는 자신의 정서를 양육자에게 의존하지만 성장할수록 자신이 정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아동기 때에는 다른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이 때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은 아동이 정서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Cummings, Braungart-Rieker, & DuRocher-Schudlich, 2003; Saarni, 2000). 중기 및 후기 아동기 때에는 자궁

심과 수치심과 같은 복합정서를 이해하려는 능력이 증가하고 내면화되면서 대인적 책임감과 통합된다(곽금주 등, 2006)

이처럼 아동의 정서를 발달시키는 데는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이 정서를 표현할 때 양육자가 수용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자란다면 아동의 정서표현에 문제가 발생한다.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 표현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정서 반응에 민감해지고, 정서 표현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면 아동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게 된다(Krause et al., 2003; Shipman et al., 2005; Goldsmith & Freyd, 2005).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우영주(2014)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증가된다고 하였고, 박지선(2009)은 부모의 반응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지현(2007)은 정서표현에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덜 혼란스러워 하며 혼란스러울 때에도 스스로 효율적으로 진정시키는 등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한다고 하였다. 아동기의 정서학대 경험은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증가시키며(황은수, 정영혜, 2006; 하수홍, 장문선, 2013; 변은실, 이주영, 2016), 이에 대한 부적응적인 기대나 신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조현정, 이승연, 2014; 김혜진, 2016).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정서표현 억제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아동이 자라온 환경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억제적이다. 대체로 정서 억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나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는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Gross, John, 2003; Suh, 1994). 따라서 단순히 억제만 하고 있는 상태와 정서를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여 내적인 갈등을 겪는 상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억제 개념을 목표와 갈등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한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3) 정서표현 양가성과 전위공격성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은 분노를 유발한 대상에게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보다 안전한 대상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전위 공격성을 나타내는 사람은 분노 유발 대상에게 분노를 표현을 하고 싶지만 그 대상이 가진 힘이나 권력 때문에 보복 및 처벌이 두려워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렇게 분노를 억제하고 있다가 사소한 자극이 촉발되면 억제되었던 분노가 촉발한 대상으로 전위되면서 공격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겪는 상태를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이라 한다.

전위 공격성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정서표현 양가성과 유사한 개념인 정서표현 억제가 전위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두 요인간의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Tull 등(2007)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장기적으로는 전위 공격성을 유발하며 이는 연구 참가자들의 특성 분노를 통제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억제하면 반추하는 경향이 높아져 오히려 피하려던 정서 상태를 증가시킬 수 있어(Gross, Levenson, 1997) 분노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분노 감정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Bushman 등(2005)과 Perderson 등(2001)의 연구에서도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과 경험에 대해 반추를 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러한 반추는 정서를 지속시키고 증폭시켜 전위 공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 국내에서 연구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전위공격성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요인으로 전위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도연, 김은하, 2016). 하지만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전위 공격성에 대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황엘라, 2018)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위공격성의 정서 변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4) 아동기 외상 경험, 정서표현 양가성과 전위공격성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아동기 외상과 전위 공격성, 정서표현 양가성과 전위 공격성, 아동기 외상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각각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기 외상, 전위공격성 및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관계를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이나영 등(2017)의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은 분노억제를 매개로 전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 정서표현 양가성,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유사한 맥락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기 외상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적 역할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에 있는 전국의 만18세~35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인터넷 카페 공지, 웹사이트 이용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1차, 2차 선별 작업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먼저 1차 선별 과정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의 유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응답한 575명 중에 연구 참가에 동의하지 않은 2명,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을 묻는 2문항 모두에서 '없음'이라고 응답한 176명, 아동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12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70명(남성 43명, 여성 227명)이 2차 선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차 선별과정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질문지(CTQ-SF)의 총점이 평균 이상인 자를 선별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147명(남성 27명, 여성 120명)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3.72세($SD=4.53$)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인원수	백분율
성별	남	27	18.4
	여	120	81.6
연령	18세~23세	81	51.3
	24세~29세	44	29.9
	30세~35세	22	15.0
직업	무직	16	10.9
	학생	88	59.9
	회사원	19	12.9
	주부	14	9.5
	자영업	2	1.4
	기타	8	5.4
결혼	미혼	124	84.4
	결혼	23	15.6
	이혼	0	0
	별거	0	0
	사별	0	0
종교	무교	77	52.4
	기독교	49	33.3
	천주교	11	7.5
	불교	9	6.1
	기타	1	.7

주. N=147

2. 연구도구

1)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직업, 종교, 결혼유무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Bernstein 등(1998)이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판(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을 사용하였다.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번안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는 신체학대와 신체방임, 정서학대와 정서방임, 성학대 등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이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서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측정하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평정 척도(1= 전혀 없었다, 4=자주 있었다)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학대는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예: 멍청이, 똥똥이)”, 정서방임은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방임 문항은 역채점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방임이나 학대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

고, 학대 및 방임은 각각 .86과 .85이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는 .57, 학대 및 방임은 각각 .54, .73 나타났다.

정서적 외상의 심각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의 빈도, 지속 기간, 이에 대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사용된 질문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나타난 질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기 경험은 과거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회상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내적 합치도 계수
정서학대	1, 2, 3, 4, 5	5	.54
정서방임	(6), (7), (8), (9), (10)	5	.73
	전체	10	.57

2)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표현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억제하거나 정서 표현에 대한 후회나 욕구들 간의 갈등으로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이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 방어적 양가성 13문항, 관계관여적 양가성 8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가 종종 힘들다”,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러지 않으려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 결과,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각각 .89, .78이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지도 계수는 .91로 나타났으며,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각각 .89 .80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내적 합지도 계수
자기방어적 양가성	1, 2, 3, 4, 5, 6, 7, 9, 10, 11, 12, 14, 15	13	.89
관계관여적 양가성	8, 13, 16, 17, 18, 19, 20, 21	8	.80
전체		21	.91

3) 전위공격성

전위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nson과 Pedersen, Miller(2006)가 개발한 전위된 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를 이하나(2009)가 변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하나(2009)가 타당화한 전위된 공격성 질문지는 분노반추 10문항, 전위된 공격행동 9문항, 보복계획 8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7점 Likert식 평정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나 방임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노반추는 “나는 나를 화나게 했던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각한”。 전위된 공격행동은 “나는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한다”。 보복계획은 “만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 준다면,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옳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나(2009)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이고, 분노반추, 전위된 공격성, 보복계획은 각각 .93, .92, .89이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는 .95로 나타났고, 분노반추, 보복계획, 전위된 공격행동은 각각 .92, .89, .93으로 나타났다.

표 4. 전위공격성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구분	문항번호	문항수	내적 합치도 계수
분노반추	2, 3, 6, 8, 11, 14, 17, 20, 22, 25	10	.92
보복계획	4, 6, 12, 15, 18, 23, 26, 27	8	.91
전위된 공격행동	1, 5, 7, 10, 13, 16, 19, 21, 24	9	.90
전체		27	.91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PASW statistics v21.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3.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

성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Process macro 3.0을 사용하였다.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Process macro는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전체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해 주며,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공변량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정지현, 권석만, 2012). 본 연구는 매개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상이한 연구결과에 따라 두 개의 하위변인을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10000이었으며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95% 신뢰수준을 사용하였다.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표현 양가성,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 대상자들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외상경험과 관련된 기타 문항, 정서표현 양가성, 전위공격성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포함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평균은 16.51($SD=3.2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정서학대의 평균이 8.16($SD=2.10$), 정서방임의 평균이 8.35($SD=2.51$)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의 평균은 70.22($SD=13.77$)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41.03($SD=9.59$),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29.18($SD=5.55$)로 나타나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관계관여적 양가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위공격성의 평균은 95.01($SD=28.19$)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분노반추의 평균이 45.59($SD=12.85$), 보복계획의 평균이 24.40($SD=11.15$), 전위된 공격행동의 평균이 25.03($SD=10.27$)로 나타나 분노반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측정변인들이 정규성 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 검증 방법의 하나인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정규왜도와 첨도 절대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가 -0.30 에서 $.76$ 로 나타났고, 첨도가 -0.98 에서 $.87$ 로 나타났다. Kline(2010)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각 변수의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가 10미만인 경우 정규성 가정이 만족된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측정치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표 5.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동기 정서적 외상	16.51	3.25	-.31	-.99
정서학대	8.16	2.10	.77	.87
정서방임	8.35	2.51	.38	-.33
정서표현 양가성	70.22	13.77	-.24	-.50
자기방어적 양가성	41.03	9.59	-.26	-.39
관계관계적 양가성	29.18	5.55	-.25	-.57
전위공격성	95.01	28.19	.21	-.33
분노반추	45.59	12.85	-.09	-.71
보복계획	24.40	11.15	.62	-.38
전위된 공격행동	25.03	10.27	.36	-.58

주. N=147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관련 특징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을 보다 면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참가자에게 외상 경험의 빈도, 지속기간, 외상경험으로 인해 병원 및 관련 기관에 도움 청한 경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회상정도를 응답하게 하게 한 후, 수집된 자료를 빈도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6개월에 1회 이상이 46.3%로 가장 높았고, 한 달에 1회 이상이 22.45%, 주 1회 이상이 15.6%, 없음이 14.3%, 거의 매일이 1.4%으로 나타났다. 지속기간은 일회성이 59.9%로 가장 높았고, 1년 이상이 21.8%, 한달 미만인 13.6%, 1년 미만이 2.7%, 6개월

미만이 2%로 나타났다. 병원 및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의 유무는 없음이 88.4%로 대부분이었고, 있음이 11.63%로 나타났다. 도움을 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도움을 받은 횟수는 1~5회가 4.8%로 나타났고, 기타가 2%, 6~11회와 24회 이상이 0.7%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기타는 경험 횟수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았거나, 기관의 도움이 아닌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표 6. 아동기 정서적 외상 관련 특성

	구분	인원수	백분율
빈도	거의 매일	2	1.4
	주 1회 이상	23	15.6
	한 달에 1회 이상	33	22.4
	6개월에 1회 이상	68	46.3
	없음	21	14.3
지속기간	일회성	88	59.9
	한 달 미만	20	13.6
	6개월 미만	3	2.0
	1년 미만	4	2.7
	1년 이상	32	21.8
도움경험	있음	17	11.6
	없음	120	88.4
도움횟수	없음	135	91.8
	1~5회	7	4.8
	6~11회	1	.7
	12~17회	0	0
	18~23회	0	0
	24회 이상	1	.7
	기타	3	2.0
삶의 영향	전혀 아님	19	12.9
	거의 아님	66	44.9
	보통이다	25	17.0
	조금 그렇다	30	20.4
	매우 그렇다	7	4.8
회상정도	전혀 안난다	0	0
	드문드문 기억난다	0	0
	비교적 잘 기억난다	110	74.8
	생생히 기억난다	37	25.2

주. N=147

2)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측정변인들이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전위공격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서표현 양가성 [$F(1,145)=7.22$ $p<.01$]과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 [$F(1,145)=5.09$ $p<.05$], 관계관여적 양가성 [$F(1,145)=3.98$ $p<.05$]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7.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

변인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i>F</i> 값	<i>p</i> 값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남	27	16.19	3.27	.02	.67
	여	120	16.58	3.25		
정서확대	남	27	7.67	1.54	2.58	.11
	여	120	8.27	2.19		
정서방입	남	27	8.52	2.67	1.20	.28
	여	120	8.32	2.49		
정서표현 양가성	남	27	70.52	9.67	7.22**	.01
	여	120	70.15	14.57		
자기방어적 양가성	남	27	40.44	7.05	5.09*	.03
	여	120	41.17	10.09		
관계관여적 양가성	남	27	30.07	4.45	3.97*	.05
	여	120	28.98	5.77		
전위공격성	남	27	87.67	25.24	2.00	.16
	여	120	96.67	28.64		
분노반추	남	27	41.19	11.34	1.47	.23
	여	120	46.58	13.01		
보복계획	남	27	22.74	10.46	.65	.42
	여	120	24.76	11.30		
전위된 공격행동	남	27	23.74	9.69	.92	.34
	여	120	25.32	10.41		

주. $N=147$, * $p<.05$, ** $p<.01$

3)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주로 20초반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측정변인들이 연구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령은 5단위로 나누어 만18~23세, 만24~29세, 만30~35세로, 3그룹으로 설정하였고,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표현 양가성, 전위 공격성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연령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

변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값	P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만 18~23세	81	16.35	3.17	.25	.78
	만 24~29세	44	16.66	3.23		
	만 30~35세	22	16.82	3.65		
정서확대	만 18~23세	81	8.14	2.06	.63	.53
	만 24~29세	44	8.39	2.06		
	만 30~35세	22	7.77	2.33		
정서방임	만 18~23세	81	8.21	2.48	.99	.38
	만 24~29세	44	8.27	2.40		
	만 30~35세	22	9.05	2.87		
정서표현 양가성	만 18~23세	81	71.86	13.31	1.31	.27
	만 24~29세	44	68.00	14.99		
	만 30~35세	22	68.59	12.67		
자기방어적 양가성	만 18~23세	81	42.47	9.14	2.08	.13
	만 24~29세	44	39.07	10.51		
	만 30~35세	22	39.68	8.78		
관계관여적 양가성	만 18~23세	81	29.40	5.38	.13	.88
	만 24~29세	44	28.93	6.25		
	만 30~35세	22	28.91	4.83		
전위공격성	만 18~23세	81	95.99	27.95	.11	.90
	만 24~29세	44	94.00	31.91		
	만 30~35세	22	93.46	21.34		
분노반추	만 18~23세	81	46.03	12.60	.19	.82
	만 24~29세	44	45.52	14.13		
	만 30~35세	22	44.09	11.46		
보복계획	만 18~23세	81	24.79	11.10	.11	.90
	만 24~29세	44	23.86	12.55		
	만 30~35세	22	24.05	8.40		
전위된 공격행동	만 18~23세	81	25.17	10.67	.05	.95
	만 24~29세	44	24.61	10.76		
	만 30~35세	22	25.32	7.92		

주. N=147

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정서표현 양가성, 전위공격성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Cohen 등(2003)이 제시한 상관관계수 크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2~.4 범위에 존재하는 경우는 낮은 상관성, .4~.7 범위에 존재하는 경우는 중간 상관성, .4~.7의 범위에 존재하는 경우는 높은 상관성, .7 이상의 범위에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상관분석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자기방어적 양가성, 전위 공격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관계관여적 양가성과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전위공격성($r=.34, p<.01$)과 자기방어적 양가성($r=.38, p<.01$) 간의 관계에서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에 연구가설 1-1(“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전위공격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와 1-2(“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1-3(“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관계방어적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하위요인들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정서학대는 정서표현 양가성($r=.21, p<.05$)과 하위유형인 자기방어적 양가성($r=.25, p<.01$)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전위 공격성($r=.36, p<.01$)과 낮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전위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분노반추($r=.37, p<.01$)와 전위된 공격행동($r=.26, p<.01$), 보복계획($r=.25, p<.01$)과도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정서방임은 정서표현 양가성($r=.23, p<.01$)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r=.28, p<.05$)과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들과 전위 공격성의 상관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전위공격성과 낮은 상관성을 보였으나($r=.36, p>.05$),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

에 연구가설 1-4 (“전위공격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1-5(“전위공격성은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은 기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 요인들과 전위공격성의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분노반추($r=.36, p<.01$)와 전위된 공격행동($r=.39, p<.01$)과 낮은 상관성을 보였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분노반추와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r=.18, p<.05$).

본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을 대상으로만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여성 참가자들만 분석한 상관관계 결과, 남성과 혼합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낮은 상관성을 보였고($r=-.20, p<.05$), 전위공격성의 하위요인인 보복계획에서도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r=-.26, p<.05$).

표 9.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1	1-1	1-2	2	2-1	2-2	3	3-1	3-2	3-3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									
1-1. 정서 확대	.63**	-								
1-2. 정서방입	.76**	-.02	-							
2. 정서표현 양가성	.32**	.21*	.23**	-						
2-1. 자기방어적 양가성	.38**	.25**	.28**	.95**	-					
2-2. 관계관여적 양가성	.13	.09	.09	.84**	.63**	-				
3. 전위공격성	.34**	.36**	.14	.29**	.36**	.11	-			
3-1. 분노만추	.32**	.37**	.10	.32	.36*	.18*	.86**	-		
3-2. 보복계획	.22	.25**	.08	.09	.13	-.01	.84**	.59**	-	
3-3. 전위된 공격행동	.29**	.26**	.16	.31**	.39**	.09	.76**	.46**	.48**	-

주. $N=147$, * $p<.05$, ** $p<.01$

표 10.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1	1-1	1-2	2	2-1	2-2	3	3-1	3-2	3-3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									
1-1. 정서 확대	.64**	-								
1-2. 정서방입	.74**	-.02	-							
2. 정서표현 양가성	.36**	.23*	.27**	-						
2-1. 자기방어적 양가성	.40**	.26**	.29**	.96**	-					
2-2. 관계관여적 양가성	.20*	.12	.16	.86**	.66**	-				
3. 전위공격성	.38**	.36**	.18	.32**	.38**	.14	-			
3-1. 분노만추	.38**	.37**	.15	.36*	.39**	.23*	.87**	-		
3-2. 보복계획	.26*	.25**	.11	.09	.12	-.03	.85**	.63**	-	
3-3. 전위된 공격행동	.29**	.22**	.18*	.32**	.40**	.10	.75**	.46**	.46**	-

주. $N=147$, * $p<.05$, ** $p<.01$

2. 매개모형 검증

1)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준거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경로 c).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경로 a).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을 통제했을 때 매개변수가 준거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경로 b). 이때 1단계에서 확인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경로 c)과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경로 c')을 비교했을 때 경로 c'가 감소한 경우에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로 c'의 영향력이 감소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이상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여전히 유의하면 부분매개가 검증된다(서영석,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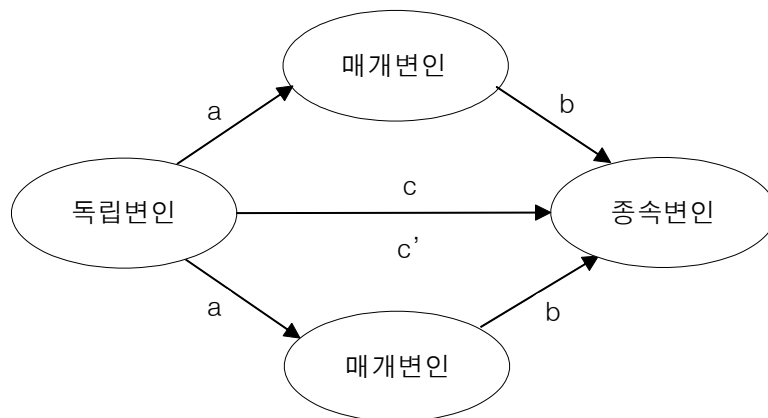


그림 2. 변인간의 관계를 나타낸 매개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을 공변량으로 설정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그림 3]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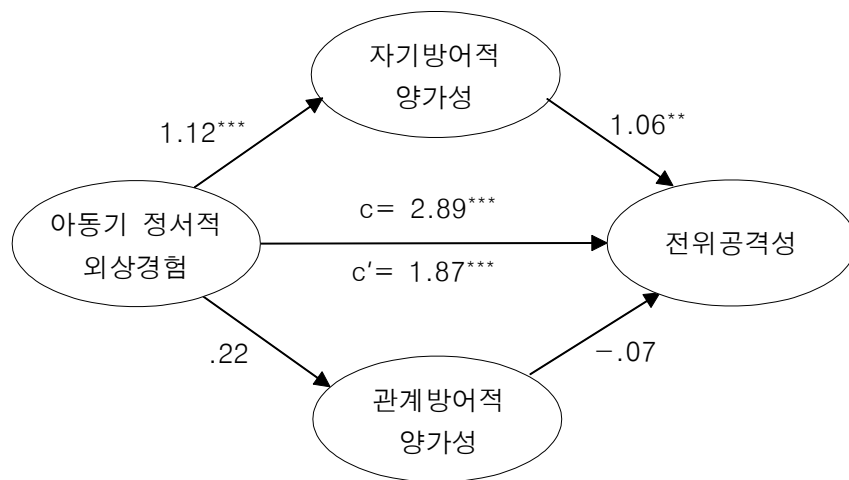


그림 3.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다중매개 모형
c=직접효과 크기, c' =간접효과 크기

[그림 3]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자기방어적 양가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1.12, p<.001$).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증가할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관계방어적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B=.22, p>.05$).

다음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전위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분석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은 전위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2.89$ $p<.001$).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높아질수록 전위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분석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B=1.06$, $p<.01$)과 관계관여적 양가성($B=-.70$, $p<.05$)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87$, $p<.05$).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변인들 간 경로분석

단계	주요변인	<i>B</i>	<i>SE</i>	<i>t</i>	<i>R</i> ²	<i>F</i>
1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 자기방어적 양가성	1.12	.23	4.09***	.14	12.08***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 관계관여적 양가성	.22	.14	1.59	.03	1.70
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 전위공격성	2.89	.68	4.29***	.13	10.44***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 전위공격성	1.87	.71	2.62*		
3	자기방어적 양가성 → 전위공격성	1.06	.31	3.43**	.20	8.81***
	관계관여적 양가성 → 전위공격성	-.70	.50	-1.40		

주. $N=147$, * $p<.05$, ** $p<.01$, *** $p<.001$

본 연구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이 제시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으로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 간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매개효과가 95% 신뢰구간이 [.30, 1.9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거쳐 전위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28, 2.25]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가설 2-1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의 증가할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수준이 높아져 전위 공격성이 증가할 것이다.”)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거쳐 전위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56, .14]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가설 2-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증가할수록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높아져 전위공격성이 감소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표 12.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독립변인	매개변인	전위공격성	
		매개효과크기	95% CI
	전체	1.32	[.30, 1.94]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자기방어적 양가성	1.49	[.28, 2.25]
	관계관여적 양가성	-.18	[-.56, .14]

V. 논 의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의의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전위공격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 및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있는 초기 성인기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번의 선별 작업을 통해 성인남녀 총 147명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변인인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정서표현 양가성, 전위공격성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수준이 높을수록 전위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 정서를 억제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전위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이나영 등, 2017; 곽도희, 2018), 본 연구의 1-1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의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Goldsmith와 Freyd(2005)의 연구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정서반응에 민감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이지현, 2007; 박지선, 2009; 김은정, 2010; 조현정, 이승연, 2014; 김혜진, 2016).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부정적 지표와 관련이 깊은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증가하지만 대인관계에서 보다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관계관여적 양가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자기방어적 특징을 보이는 정서억제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의 1-2의 가설은 지지되었지만 1-3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과 전위공격성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전위공격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유형의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자신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정서 표현에 대한 불능감과 자신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에게 거부 받거나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한다(최혜연, 민경환, 2007). 이는 공격성과 관련이 높은 거부민감성과 관련된다(Romero,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이러한 거부민감성은 전위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임혜은, 2016; 박보람, 2017; 황엘라, 2017; 금다정, 2018).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정서표현에 있어 의도적인 억제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보다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최혜연, 민경환, 2007; 최혜연, 이동귀, 민경환, 2008; 김용희, 2012). 이에 본 연구의 1-4의 가설은 지지되었지만 1-5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참가자는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변인 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남성혼합 집단의 상관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 혼합 집단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그리고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의 하위요인인 보복계획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때 정서적 외상경험이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이러한 관련성을 기반으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할 때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을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유형이 정서를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적으로 갈등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억제 동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미숙하고 정서적인 대처를 사용하며(최해연, 민경환, 2007) 이는 전위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보다 적응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방어적 양가성의 이러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서표현을 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해서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한다. 이러한 억제된 정서는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며(Gross, Levenson, 1997), 특히 분노 정서의 경우 역기능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전위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높은 개인은 대인관계를 중시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을 하기 때

문(최해연, 민경환, 2007) 분노를 유발한 대상 뿐 아니라 전위공격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타인의 관계까지도 고려하여(김도연, 김은하, 2016) 전위 공격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반추의 수준에 따라 전위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계속해서 반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반추적 경향이 비교적 낮다. 반추를 한다고 해도 자기방어적 양가성보다 원인반추를 하는 경향이 있어 분노 기분을 느낄 가능성이 낮다(이혜민, 2015).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분노를 반추함으로써 분노를 유지하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노를 억제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분노를 다른 대상에게 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정서표현의 매개효과의 이러한 결과는 전위 공격성으로 인해 대인관계 및 적응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을 단순히 억제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보단 감정 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적절한 상담전략을 구상할 수 있고, 억압해온 감정들이 전위 공격성을 통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직접 공격성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된 것과는 다르게 아직 연구 초기 단계에 있는 전위 공격성의 개념을 연구함으로써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문화 특성에서 보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전위 공격성에 대한 이 연구는 한국인의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아동기 때 경험하였던 정서적 외상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정서표현 양가성이나 전위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에 대한 선행 연구는 수없이 많지만 전위 공격성과 함께 다른 연구는 그에 비해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 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후유증의 폭을 확장시켰고,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고시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의 참가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임상적인 결과를 갖기 위해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 질문지의 총합이 평균 이상인 참가자만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는 집단을 선별하지 않고 연속 변인으로 측정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상은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며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낮은 점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교적 높은 점수의 대상을 선별하여 임상적 의의를 갖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시점에 아동기 때의 기억을 더듬어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응답에 있어 불확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 회상정도를 평가하여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매개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정서억제의 양상이 다르며 이에 따라 전위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기존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하위요인으로 구분해서 연구한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을 구분함으로써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있는 개인의 정서억제 동기가 주로 정서표현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며 이는 전위공격성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인 문제를 겪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좀 더 정확

하고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며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자료수집과정에서 성별과 연령을 골고루 표집하지 못하였다. 여성이 81.6%로 연구대상자의 3/4 이상을 차지하였고, 연령 역시 만 18세~만 23세의 성인이 51.3%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 성별과 연령의 차이 검증은 실시하였고 성차에 있어 측정변인들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균등하게 표집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만을 대상으로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집단 비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을 보다 임상적으로 측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외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외상을 평가하는데 있어 사용한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고, 외상경험의 빈도,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은 빈도와 기간, 발생 시기에 따라 심각도 및 나타내는 증상이 다르다(최지영, 오경자, 2015; 장화정, 2004; Jaffe, Maikovich-Fong, 2011).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아동기 정서적 외상의 지속기간, 빈도,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 참가자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때의 기억을 회상하도록 하여

외상의 정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아동기에 경험한 것보다 낮게 혹은 높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고하는 질문을 포함시켰으나 이 역시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기 정확한 측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단연구와 같이 보다 신뢰도 있는 측정방법으로 외상의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있는 성인 중 부적응을 야기시키는 정서억제의 경로와 보호요인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있는 성인이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전위 공격성의 수준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전위공격성 두 변인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상관이 있으나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개인의 거부 민감성이나 정서 중심적 문제 해결방식을 완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유나 (2016).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8(1), 105-132.
- 구훈정, 조현주, 이종선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정서강도와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191-216.
- 권진희 (2011).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4(1), 37-49.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곽금주, 정윤경, 김민화, 박성혜, 송현주. (2006). **아동발달심리학**. 박학사
- 곽도희 (2018).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불안 애착과 회피애착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도연, 김은하 (2016). 정서표현 양가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6), 43.
- 김미라, 강지현 (2012).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남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정서수용태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6), 2803-2820.
- 김승미 (2016).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다미(2001).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08).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우울수준간의 관계: 정서조

- 절곤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9(4), 1505-1520.
- 김은정 (2009).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2010).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 태도와 아동의 분노표현 방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재엽, 송아영 (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23). 99-125.
- 김진이 (2013). **배척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 방식, 정서표현 양가성, 자의식적 정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화 (2010). 아동기 외상과 성인애착, 테이트 폭력의 관계. **미래놀이상담연구**, 6(2), 67-87.
- 김진희 (2017). **운전분노 경향성이 위험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감정과 전위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교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진 (2016). **초기성인기 이성 관계에서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영천, 김홍석 (2013). 아동의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1-20.
- 류준범 (2000). **분노의 다차원적 특성과 신체 건강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

- 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소담, 이한나, 송인한 (2015).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과몰입이 폭력적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능력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2(1), 57-80.
- 박경 (2013). 정서인식의 명확성 및 정서표현 양가성과 화병과의 관계에서 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 5(2), 103-116.
- 박근희 (2017). **고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분노표현양식과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기환, 서민재 (2013). 전위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63-181.
- 박미란 (2003).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보람 (2017). **거부민감성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서울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순조 (2012). 아동이 경험한 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생 각본을 매개변인으로. **교류분석상담연구**, 2(2), 1-21.
- 박애리 (2014). 부모간의 폭력노출 및 학대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0). 503-528.
- 박인구(2012). **고등학생의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분노, 공감, 용서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인구, 한기백 (2014). 청소년이 지각한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과 공격성의 관계: 분노와 공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375-397.
- 박지선 (2009).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아동기 경험이 청소년의 정서표현 갈등과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17(4), 425-434.
- 변은실, 이주영(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 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보건복지부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산화협력단
- 보건복지부 (2015).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2), 1-15.
- 석애란 (2017).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유은 (2015).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 타인 중심성 도식과 전위공격**.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령 (2005).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영주, 장현아 (2017). 애착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3(1), 111-140.
- 신보람, 권해수 (2016). 대학생의 우울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반응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17(2), 86-102.
- 신현경, 이승연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 분노억제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배척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0), 259-285.
- 아동복지법 제 3조 7호.
- 안규민 (2016). **아동의 학대경험이 또래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동현, 장화정, 이영애, 홍강의, 이재연, 이양희, 조홍식, 광영숙 (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 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권리연구**, 7(1), 121-139.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8(2). 283-301.
- 우영주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통제가 중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유재학, 서민재, 박지선 (2013). 아동기 외상 경험과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 간의 관계: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4(1), 36-43.
- 윤정숙, 김민지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1), 147-174.
- 윤정숙, 박지선, 안성훈, 김민정 (2014).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 9(1), 1-179.
- 은희정 (2002). **가정내 학대받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203-222.
- 이아영, 유서구 (2011). 부부간 폭력의 노출정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패널자료(KYPS)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25-245.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비, 장은영, 이선미 (2015). 아동기 외상과 분노행동: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0(2), 31-42
- 이은주 (2010).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중단적 공동발달: 잠재 성장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1(4), 171-200.
- 이정숙, 이현, 안윤영, 유정선 (2010). 대학생 분노조절을 위한 통합적 집단상담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7(2), 131-154.
- 이지영, 손정락 (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 간 관계에서 불안정애착과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841-851.
- 이지현 (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정서지능 및 아동의 정서지능간의 관련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하나 (2009). 전위된 공격성 집단의 특성에 관한 탐색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범문사.
- 이혜영 (2014). 평가 피드백, 공격대상의 지위 및 익명성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혜은 (2016). 학령 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장조현. (2004).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불안 및 공격성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희순 (2015). 아동기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외상후 증상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19(2), 163-185.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 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조영희, 정남운 (2016). 성인애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169-190.
- 조은영 (2011).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특성과 전위공격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정, 이기학 (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5(3), 583-595.
- 조한익, 최종환 (2013).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초기 성인기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용서신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9), 125-148.
- 조현정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현정, 이승연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33-53.
- 채유경 (2005). 폭력 노출 경험, 부부 갈등, 가족 기능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1041-1054.
- 최영 (2016).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사이버 불링 경향성의 관계에서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최하연, 이동귀, 민경환 (2008).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료성 및 정서표현양가성의 군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59-73.
-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한규석 (1988).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허정윤, 유영달 (2012).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가족과 문학**, 24(1), 177-211.
- 황선주, 박기환 (2014). 우울-품행장애서향 청소년의 전위 공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9(4), 1125-1144.
- 황엘라 (2017). **거부민감성과 전위공격성의 관계: 정서표현 양가성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9(2), 73-89.
- 황정윤 (2017). **사회적 배제 경험이 여대생의 전위된 공격성의 표출에 미치는 기제: 자기초점적 반추와 촉발사건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PA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5판)**. 서울: 학지사.
- Allen, J. G. (1995). *Coping with trauma: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Allen, J. G. (2014). 트라우마의 치유(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권정혜, 김정범, 조요열, 최혜경, 최윤경, 권호인 공역). 서울: 학지사.
- Bagley, C., Wood, M., Young, L. (1994). Victim to abuser: Mental health and behavior sequels of child sexual abuse in a community survey of young adult males. *Child Abuse & Neglect*, 18(8), 683-697.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ttle, C. L., Shea, M. T., Johnson, D. M., Yen, S., Zlotnick, C., Zanarini, M. C., et al. (2004). Childhood maltreatment associated with adult personality disorders: Findings from the collaborative longitudinal personality disorders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 193-211.
-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y*, 45(4), 494-503.
- Berzenski, Yates (2011). Classes and Consequences of Multiple Maltreatment A Person-Centered Analysis, *Child Maltreatment*, 16(4), 250-261.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2, 331 - 341.
- Bernstein, D. P.,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Psychological Corporation.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NY: Basic Books.
- Briere, J., & Scott, C. (2006).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A guide to symptoms, evaluations, and treatment*. Thousand Oaks, CA: Sage.
- Bushman, B. J., Baumeister, R. F., Pillips, C. M. (2001). Do people aggress to improve their mood? catharsis belief, affect regulation opportunity, and aggressiv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7-32.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Butler, E. A., Lee, T. L., & Gross, J. J. (2007). Emotion regulation and culture: are the social consequences of emotion suppression culture-specific?. *Emotion*, 7(1), 30.
- BWJH, Zitman FG. (2009). Childhood life events and childhood trauma in adult patients with depressive, anxiety and comorbid disorders vs. control, *Acta Psychiatr Scand* 2010: 122: 66 - 74
- C. Feiring. (2005). Emotional Development, Shame, and Adaptation to Child Maltreatment, *Child Maltreatment*, 10(4). 307-310.
- Cicchetti, D., & Toth, S. L. (2000). Developmental processes in maltreated children. In D. J. Hansen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Child maltreatment*,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ollins, N. L., & Miller, L. C. (1994). Self-disclosure and lik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57-475.

- Cox, T., McCay, C. (1982). Psychosocial factors and psychophysiological mechanisms in the aetiology and development of canc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6, 381–396.
- Debra J. Rich, Karla J. Gingerich & Lee A. Rosen (1997).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Associated Psychopatholog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3(11). 13–28
- Denson, T. F., Pedersen. W. C.,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1031–1051.
- Denson, T. F., Pedersen, W.C., Ronquillo, J., Nandy, A. S. (2008). The Angry Brain: Neural Correlates of Anger, Angry Rumination, and Aggressive Personalit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1(4),734 - 744.
- Denson, T. F., White, A. J., Warburton. W. A. (2009). Trait displaced aggression and psychopathy differentially moderate the effects of acute alcohol intoxication and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673–681.
- De Bellis, M. D. (2001). Developmental traumatology: The psychobiological development of maltreated children and its implications for research, treatment, and polic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3), 539–564.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Erin E. Burns , Joan L. Jackson & Hilary G. Harding. (2010).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The

- Impact of Emotional Abus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801 - 819.
- Ekman P (2003). *Emotions revealed*. New York, Holt.
- Erickson, M. F., & Egeland, B. (1996). J. Briere, L. Berliner, J. A. Bulkley, C. Jenny, & T. Reid,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4-20.
- Ethier, L., Lemelin, J. P., Lacharite, C. (200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on children'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Child Abuse and Neglect* 28(12): 1265-1278.
- Friedman, Booth-Kewley (1987). Personality, Type A Behavior, and Coronary Heart Disease: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4), 783-792.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uthier, L., Stollak, G., Messe, L., Aronoff, J. (1996). Recall of childhood neglect and physical abuse as differential predictors of curr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Child Abuse & Neglect*, 20(7), 549-550.
- Giese-Davis, J., Spiegel, D. (2001). Suppression, repressive-defensiveness, restraint, and distress in metastatic breast cancer : separable or inseparable constructs?, *Journal of Personality*, 63(9), 417-449.
- Goldsmith, R., Freyd, J. J. (2005). Awareness for emotional abuse. *Journal of Emotional Abuse*, 5(1), 95-123.
- Goldstein, H. S., Edelberg, R., Meier, C. F., Davis, L. (1988). Relationship of resting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to experienced anger and expressed anger. *Psychosom Med*, 50, 321-329.

- Gipple, D. E., Lee, S. M., & Puig, A. (2006). Coping and dissociation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Reporting childhood abuse experience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9*, 33 - 46.
- Gross, J. J.,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Gross, J. J., John, O. P.(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an, G. (2010). *Adult attachment patterns, mental representation of self and faith: Mediator of childhood trauma and affect-behavior regulations in adulthood*. A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North Texas.
- Haskett, M. E. (1990).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of you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21*, 109-118.
- Henry Scheffe. (1953). *A Method for Judging all Contrasts in the Analysis of Variance* Author(s), Oxford University Press on behalf of Biometrika Trust.
- Herrero-Fernandez, D. (2012). Analisis de diferencias en la magnitud de la ira provocada por distintos eventos del trafico y en las formas de expresarla.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magnitude of anger provoked by different traffic events and the ways to express it], *Securitas Vialis, 13*, 11-23.
- Herrero-Fernandez, D. (2013b). Do people change behind the wheel? A

- comparison of anger and aggression on and off the road.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21, 66-74.
- Hoobler, J. M., Brass, D. J. (2006). Abusive supervision and family undermining as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5), 1125-1133.
- Hovens, J. G. F. M., Wiersma, J. E., Giltay, E. J., van Oppen, P., Spinhoven, P., Pennix, B. W. J. H., Zitman, F. G. (2010). Childhood life events and childhood trauma in adult patients with depressive, anxiety and comorbid disorders vs. control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22(1), 66-74.
- Ilyse L. Spertusa,, Rachel Yehudab, Cheryl M. Wongc, Sarah Halligand, Stephanie V. Seremetis (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a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 Neglect* 27 (2003) 1247 - 1258.
- Janig W (2003).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Its Coordination by the Brain*, in Handbook.
- Jill Lobbestael, Arnold Arntz, David P. Bernstein. (2010). Disentangling the relationship betwwn different types of childhood maltreatment and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4(3), 285 - 295.
- Johnson, J. G., Cohen, P., Chen, H., Kasen, S., & Brook, J. S. (2006). Parenting behaviors associated with risk for off-spring personality disorder during adultho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3,

579-587.

- Judith Lewis Herman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 King, L. A.,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onecni, V. J., Doob, A. N. (1972). Catharsis through displacement of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3, 379-387.
- Konecni, V. J. (1974). Self-arousal, dissip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 192-194.
- Krause, E. D., Mendelson, T.,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2), 199-213. Ilyse L. Spertusa,, Rachel Yehudab, Cheryl M. Wongc, Sarah Halligand, Stephanie V. Seremetis (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a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 Neglect* 27 (2003) 1247 - 1258.
- Maxfield, M. G., Widom, C. S. (1996). The cycle of violence revisited six years later.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0, 390-395.
- McGee, Wolfe, & Wilson, (1997). Multiple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Adolescents' perspectiv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131-149

- Meston, C. M., Heiman, J. R., & Trapnell, P. D. (1999). The relation between early abuse and adult sexuality. *Journal of Sex Research*, 36, 385 - 395.
- Miller, N. E. (1941).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Psychological Review*, 48(4), 337-342.
- Miller, N., Marcus-Newhall, A. (1997). *A conceptual analysis of displaced aggression*. In R. Ben-Ari & Y. Rich(Eds.), *Enhancing education in heterogeneous schools: Theory and application*, Ramat-Gan, Israel: Barllan University Press.
- Moeller, T. P., Bachmann, G. A., & Moeller, J. R. (1993). The combined effects of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 during childhood: Long-term consequences for women. *Child Abuse & Neglect*, 17, 623 - 640.
- Mongraine, Vettese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 29, 545-555.
- Moore, S. C., Heikkinen, M., Commentary on lloyd et al. (2013): Secondary harms and opportunities for moderation. *Addiction (Abingdon, England)*, 108(4), 710.
- Mullen, P. E., Martin, J. L., Anderson, J. C., Romans, S. E., & Herbison, G. P.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 7 - 21.
- Pedersen, W. C., Denson, T. F., Goss, R. J., Vasquez, E. A., Kelley, N. J., Miller, N. (2011). The impact of rumination on aggressive thoughts,

- feelings, arousal, and behaviour.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 281-301.
- Perry, B., Szalavitz, M. (2006). *개로 길러진 아이: 사랑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희망을 보여 준 아이들*(The boy who was raised as a dog). (황정아 번역). 민음인.
- Pollak, S. D., Sinha, P. (2002). Effects of early experience on children's recognition of facial displays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 267-274.
- Rajchert, J., Winiewski, M. (2016) The behavioral approach and inhibition systems' role in shaping the displaced and direct aggressive reaction to ostracism and reje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8(2016), 272-279.
- Redford, P. (1999). Self-construal and anger action tendencies in hong kong and the united kingdom. *Merging Past, Present and Future in Cross Cultural Psychology*, 367-386.
- Reijntjes, A., Kamphuis, J. H., Thomaes, S., Bushman, B. J., Telch, M. J. (2013). Too calloused to care: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factors influencing youth's displaced aggression against their peer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2(2), 28-33.
- Rich, D. J., Gingerich, K. J., & Rosen, L. A. (1997).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associated psychopath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1, 13 - 28.
- Sackett, L. A., & Saunders, D. G. (1999). The impact of different forms of psychological abuse on batter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4, 105 - 117.

- Sarah E. Racine, Ph.D.1,2 and Jennifer E. Wildes, Ph.D (2016). Emotion Dysregulation and Anorexia Nervosa: An Exploration of the Role of Childhood Abuse. *Int J Eat Disord* 48(1): 55 - 58.
- Shipman, K., Edwards, A., Brown, A., Swisher, L., Jennings, E. (2005). Managing emotion in a maltreating context: A Pilot study examining chil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9(9), 1015-1029.
- Suh, E. M. (1994). *Emotion norms, values, familiar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Unpublished ma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at Urbana-Champaign.
- Tedeschi, R. G.,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 Tedeschi, R. G.,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1-18.
- Terr LC (1991).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10-20.
- Thornberry, T., Ireland, T., & Smith, C. 2001. The importance of timing: The varying impact of childhood and adolescent maltreatment on multiple problem outc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957-979.
- Tull, M. T., Jakupcak, M., Paulson, A., Grantz, K. L. (2007). The role of emotional inexpressiv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severity and aggressive behavior among men exposed to interpersonal violence. *Anxiety*, 20(4), 337-351.
- Zlotnich, C., Johnson, D. M., Yen, S., Battle, C. L., Sanislow, C. A., Skodol, A. E., Shea, M. T. (2003). Clinical features and impairment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BPD without PTSD, and other personality disorders with PTSD.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1(11), 706-13.

Widera-Wysoczańska, W. A., & Kuczyńska, A. (2010) *Interpersonal Trauma and its Consequences in Adulthood*.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isplaced Aggression -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Chae, Song Hwa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isplaced aggression.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147 adults aged 18 to 35.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was consisted of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SPSS 21.0 program and SPSS Macro Process v3.0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In addition, Bootstrapping analysis was conducted for verifying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The important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ldhood emotional trauma had correlated positive with displaced aggression. Second, childhood emotional trauma had correlated positive wit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ore specifically, child emotional trauma had correlated positive with self-defensive ambivalence. However, childhood emotional trauma had not correlated with relationship-involved ambivalence. Thir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correlated positive with displaced aggression. More specifically, self-defensive ambivalence had correlated positive with displaced aggression but relationship-involved ambivalence had not correlated with displaced aggression. Additionally, self-defensive ambivalence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between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isplaced aggression.

The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childhood emotional trauma and displaced aggression. Som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 : Childhood Emotional Trauma,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defensive ambivalence, Relationship-involved ambivalence, Displaced Aggression

부 록

부록 I. 아동기 정서적 외상 질문지

부록 II.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

부록 III. 전위공격성 질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의 정서표현방식 및 대처 전략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개인의 과거경험 및 정서표현 관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성인(만18~35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연구 참여를 결정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설문지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설문지는 총 6페이지로, 예상 소요시간은 약 15분이며, 개인의 정서경험 및 정서표현 관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 및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귀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다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모든 설문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신다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 종료 후 5년 간 잠금장치에 보관된 후 삭제될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에만 활용될 것입니다.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연구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지도교수 및 연구책임자 : 김정규 / 연락처 : 02-920-7136]

[연구담당자 : 채송화 / 연락처 : black1543@naver.com]

귀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적 사항 -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나 이 : (만 세)
3. 직 업 :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주부 ④ 자영업 ④ 기타
4. 다음은 **만 18세 이전**에 당신과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1)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있다 ()	없다 ()
2)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있다 ()	없다 ()

- ※ 다음 2문항 모두 '없다'로 표시하였다면, 설문을 멈추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장을 넘겨 설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기 정서적 외상 질문지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Short Form; CTQ-SF)

▶ 다음은 당신이 **만 18세 이전에** 당신과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음	드물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1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 멍청이, 똥땡이).	1	2	3	4
2 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	1	2	3	4
3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1	2	3	4
4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1	2	3	4
5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6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4	3	2	1
7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4	3	2	1
8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4	3	2	1
9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4	3	2	1
10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4	3	2	1

기 타 문 항

1.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① 거의매일 ② 주 1회 이상 ③ 한달에 한번 이상 ④ 6개월에 한번 이상 ⑤ 없음

2. 앞서 응답한 경험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습니까?

① 일회성 ② 한달 미만 ③ 6개월 미만 ④ 1년 미만 ⑤ 1년 이상

3. 과거에 앞서 응답한 경험으로 인해 기관 및 의료적 개입(상담 포함)이 이루어진 적이 있
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앞서 응답한 경험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거의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귀하의 아동기적 경험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① 전혀 안난다 ② 드문 드문 기억난다 ③ 비교적 잘 기억난다 ④ 생생히 기억난다

2.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

- ▶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가질 수 있는 생각과 행동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잘 읽으신 후 평소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아니 다	거의 아니 다	보통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렵다.	1	2	3	4	5
2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무안을 당하게 될까봐 두렵다.	1	2	3	4	5
3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1	2	3	4	5
4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없다.	1	2	3	4	5
5	내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야기 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1	2	3	4	5
6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7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1	2	3	4	5
8	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섭섭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숨기고 싶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1	2	3	4	5
10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감정들을 감춰두고 싶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다.	1	2	3	4	5
11	정서적 반응을 좀 더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다.	1	2	3	4	5
12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을	1	2	3	4	5

	드러내고 싶지만 상처받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					
13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5
14	나의 애정을 좀 더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15	나는 평소에 자주 화를 참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16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1	2	3	4	5
17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	1	2	3	4	5
18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조차,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19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이성친구가 알았으면 하면서도 이성 친구에 대한 질투심을 숨기려 한다.	1	2	3	4	5
20	화를 낼까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21	때때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싶더라도 언제나 기분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1	2	3	4	5

3. 전위공격성 질문지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

- ▶ 다음은 여러분이 화가 날 때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은 후, **평소의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아래 척도상의 적당한 숫자에 \surd 표 하여 주십시오.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십시오

번 영	내용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조 금 아 니 다	보 통	조 금 그 렇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화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2	나는 나를 화나게 했던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6	7
3	나는 오래전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들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1	2	3	4	5	6	7
4	만일 누군가가 나를 해치면 내가 보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1	2	3	4	5	6	7
5	나는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	1	2	3	4	5	6	7
6	나는 종종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들을 곱씹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1	2	3	4	5	6	7
7	나는 화가 나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	1	2	3	4	5	6	7
8	누군가가 나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1	2	3	4	5	6	7
9	나는 마땅히 앙갚음해야 할 누군가에게 보복할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속이 많이 상한다.	1	2	3	4	5	6	7
10	나는 때때로 나의 화나 좌절이 친구나 가족들의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다.	1	2	3	4	5	6	7
11	나는 화가 나면 한 동안 그 생각에 빠져있곤 한다.	1	2	3	4	5	6	7
12	나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발생하지	1	2	3	4	5	6	7

	오래 지난 후에도 보복해 줄 방법을 생각한다.							
13	나는 아무 죄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 한다.	1	2	3	4	5	6	7
14	언쟁이 끝난 후에도 나는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과 계속 싸우는 상상을 한다.	1	2	3	4	5	6	7
15	만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 준다면,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옳다.	1	2	3	4	5	6	7
16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안돼서 좌절될 때면, 나는 내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분풀이 한다.	1	2	3	4	5	6	7
17	나는 화가 났던 사건을 나중에 다시 떠올려본다.	1	2	3	4	5	6	7
18	시간이 지날수록 복수로 인한 나의 만족감은 더 커진다.	1	2	3	4	5	6	7
19	만약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나는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터뜨리는 편이다.	1	2	3	4	5	6	7
20	내 인생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1	2	3	4	5	6	7
21	나는 가끔 직장이나 학교에서 화가 나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공격적이 될 때가 있다.	1	2	3	4	5	6	7
22	나는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1	2	3	4	5	6	7
23	누군가가 내 비위를 건드리면 언제고 반드시 보복한다.	1	2	3	4	5	6	7
24	난 화가 나면 내가 욕설을 퍼붓는 대상이 누구든 상관 안한다.	1	2	3	4	5	6	7
25	화가 나면 나는 내 생각과 기분에 빠져 한동안 다른 일을 못한다.	1	2	3	4	5	6	7
26	만약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당신을 상처 준다면,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1	2	3	4	5	6	7
27	나는 나에게 잘못된 사람은 절대로 안 돕는다.	1	2	3	4	5	6	7